

워킹
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의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 국가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 제도로, 1995년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이래 해마다 2~3만 여명의 한국 청년들이 호주를 찾고 있음.

워킹홀리데이를 짧게 '워홀'이라고도 표현하며 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일반적으로 워홀러(Working Holiday Maker)라고 부름.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국가별 정보, 안전 정보 등 전반적인 워킹홀리데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hello워홀'에서 호주에 특화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whic.mofa.go.kr, 1899-1995

주호주 한국대사관 hello워홀센터

홈페이지 aus-act.mofa.go.kr/korean/as/aus-act/hello/know/index.jsp
 카페 cafe.naver.com/hellowh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hmsupport>



워홀가이드-인포센터



워홀가이드-hello



워홀가이드-카페



워홀가이드-hw연락처

AUSTRALIA WORKING HOLIDAY

2

필수 유의사항



| 참가자의 기본 자세 | 안전 및 기본 숙지 사항 |
 | 여권 관련 주의사항 | 대사관 등 긴급연락처 | 세부 숙지 사항 |

2

필수 유의사항



참가자의
기본자세

워킹홀리데이 본연의 목적 숙지 : 젊은이들의 외국문화 체험과 학습

명확한 목표 설정

언어, 취업, 여행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힘들다.

준비 정신

- **의사 소통**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 구직, 긴급 상황 대처 등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이 반드시 필요.
- **사전 조사**
호주의 사회, 문화 및 법규에 대한 이해와 거주하거나 여행할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시행착오의 최소화 필요.

안전 및
기본
숙지사항



호주의 법령준수 : 불법활동/불법취업 금지, 사건사고예방이 최선

현지 문화·법규 준수

치안 불안 지역 접근 주의 : 호주 내 주요 '우범지역'(p.89) 참조

한국 출국 전 반드시 워킹홀리데이 보험 가입

재외국민 등록

- 호주로 출국하기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회원 가입하여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제공받고 호주 입국 후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함.
- 재외국민 등록을 통해 비상연락처 및 가족연락처를 등록해 두면, 비상 상황(재난발생, 테러 등) 발생시 재외공관에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호주 내 공관(캔버라 대사관, 시드니 총영사관 또는 멜번 분관)에 재외국민 등록.



워킹홀리데이-재외국민

여권관련
유의사항



여권 분실 시 대처 요령

- 가까운 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각 지역 공관 순회영사 시 재발급 신청
- 우편 신청은 불가능

여권 재발급 신청 필요 서류



워킹홀리데이-여권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현재 여권(분실 시에는 생략)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사본 등)
- 여권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 유효한 호주체류 비자 증명(이메일, 비자라벨 또는 VEVO)
VEVO : [http://www.border.gov.au/Busi/visas-and-migration/visa-entitlement-verification-online-\(vevo\)](http://www.border.gov.au/Busi/visas-and-migration/visa-entitlement-verification-online-(vevo))
- 여권 발급 수수료(여권 종류별로 상이)
- 공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순회영사 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고 우편 수령이 가능하며 여권을 받을 주소가 명기된 호주 국내용 등기 우편 봉투 필요
- 각종 양식 다운로드 및 수수료 확인은 공관 홈페이지 참조



기타 주의 사항

- 여권 발급까지 보통 3주~10주 소요되며 신원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지체될 수 있음.
- 여권 분실 후 비자 만료로 급하게 귀국해야 하는 경우 여행 증명서 발급 받아 귀국 가능
- 여권 뒷면 등에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해 두고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할 것.
- 다른 신분증과 별도 보관
- 타인의 분실 여권 습득 시 가까운 대사관, 영사관으로 연락 요망
- 여권을 분실할 경우 여권위조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분실할 경우 불법행위 가담자로 의심 받아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음.

5년간 2회 이상 분실 시, 경찰청 신원조회 후 발급되므로 소요 기간이 늘어나며 유효 기간 5년짜리로 발급이 제한됨.

1년간 2회 이상 분실 시, 경찰청 신원조회 후 발급되므로 소요 기간이 늘어나며 유효 기간 2년짜리로 발급이 제한됨.

대사관 등 긴급연락처

영사 콜 센터 캔버라대사관
 +82-(0)2-2100-0404 +61-(0)2-6270-4100

24시간 연중무휴

시드니총영사관 멜번분관
 +61-(0)2-9210-0200 +61-(0)3-9533-3801

hello 워홀
 +61-(0)2-6270-4149 카톡 Whmsupport
 hello-wh@hotmail.com



세부 속지 사항

- 01** 워홀러 개개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임을 인식
- 02** '호주에 두 번 다시 올 일은 없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호주 법령 위반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민사회를 포함 우리나라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추후 호주 비자를 받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예) 직장에서의 불성실, 불법행위를 하고 해결 절차 없이 그대로 출국 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완납하지 않고 출국하는 행위 등.
- 03**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모든 사회의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체류 기간 동안 참가국의 법을 존중하며 지낼 것.
 예) 관공서의 행정업무 처리속도, 사생활에 대한 질문 수위 등.



04 최근 불거지고 있는 취업사기에 유의(특히 유학원 및 중개업체들의 과대과장 광고에 유의)

05 허용된 취업기간을 준수하고, 뚜렷한 목표 없이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여, 3D 직종에만 취업하는 경우를 지양할 것.

06 취업을 위한 경쟁력 확보

영어 공부의 중요성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영어를 잘 할 경우 현지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어필할 것



07 구직의 어려움 인식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실업률이 높으므로 구직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외국인 차별이 없어도 현지 언어 구사능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려움)

08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주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09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현지 유학원 또는 중개업체에 취업 전에 수수료를 먼저 지불하지 말 것.(워홀러 간 일자리 사고팔기 포함)

10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일자리일 경우, 주의 필요(성매매, 조직범죄 관련 가능성 등)

11 고용주가 호주 최저임금(\$17.70, 2016. 7. 1 기준)보다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 분명한 거부사를 밝힐 것.

12 자신의 객관적인 어학능력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것. 호주에 온다고해서 단기간에 영어실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 것.

13 인종차별적 언행을 삼갈 것. 호주는 다문화 사회

14 호주에 체류할 동안 지속적으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가족들에게 꾸준히 알릴 것.





15 시드니, 멜번 등 주요 대도시에서 카지노 등의 사행성 산업에 자신의 돈을 모두 소진하지 말 것.

여권을 담보로 사채를 쓰는 것은 여권법 위반

16 길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명심할 것.

17 지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집을 대신 운반해 주거나, 타인의 물건을 본인 명의의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위험함.

최근 이러한 부탁을 받아 운반하는 집에서 마약 등의 발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18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지도를 펼칠 경우,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19 호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

20 퀸즐랜드(브리즈번)와 빅토리아(멜번)의 모든 도로와 기타 주의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은 불법임.

21 사진촬영 금지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하지 말 것.

22 호주는 '물 부족 국가'이므로 언제나 물 절약을 생활화 할 것.



AUSTRALIA WORKING HOLIDAY

3

떠나기 전 준비사항



비자 신청 | 보험 가입 | 항공권 구입 | 국제면허증 발급 | 기타 참고사항